청화 스님 기념관 무안에 건립된다

3월 26일 혜운사서 착공식

현대 한국불교 큰 스승으로 추앙받는 청화 대종사(1924~2003)의 기념관이 착공했다. 전남 무안 혜운사 청화대종사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위원장 혜용, 박문재)는 3월 26일 혜운사 마당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양사업을 봉행했다.

청화 스님의 탄생지에 세운 혜운사 일대(운남면 성내리 639-7)에 새워지는 기념관은 전체 3만평 규모로 사업비 총 53억 원을 들여 청화 스님 기념관, 명상관, 종각, 요사체, 템플스테이 수련원 등을 건립한다.

특히 기념관은 90평 규모로 유물, 유품 전시, 생전 법문 영상을 정리한 영상실을 갖추고,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명상관이 50평 마련된다.



무안 혜운사에서 사부대중이 청화 스님 기념관 착공 시삽을 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향후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염불선을 비롯해 간경, 참선, 염불, 주력 등 불교수행 프로그램 운영과 혜운사 소유 부지 일대를 정비해 역사와 힐링, 문화공간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벽산문도회 대표 도일 스님, 혜용 스님, 성륜사 주지 대주 스님, 백양사 부주지 만당 스님, 종회의원 원명 스님 등 백양사 문도와 무안불교사암연합회 덕산 스님, 무안군 김산 군수, 진주 강씨 무안종진회 강승철 회장 등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 혜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화 큰스님 기념관을 통해 스님의 뜻을 기리고 스님의 법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해안지역 문화와 농축산물, 생활 관광, 레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만당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정말 훌륭하신 수행과 정진력으로 저희들에게 큰 감화를 주셨던 청화 대종사의 기념사업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청화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을 되새기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이 싹트고 수행과 정진의 힘을 얻어서 세상이 밝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자들 울주 산불지역 1천그루 나무 심다

울산 정토사 3월 27일 식목봉사 전개



나무 심기를 마친 불자들이 산림 회복을 서원하고 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3월 27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웅촌 청량지역에서 벚나무 1000그루를 심는 '함께 하는 삶을 위한 나무 방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과 정토사 신도 100여 명, (사)참 좋은 세상 울산불교환경연대 대표 천도 스님과 회원, 울산불교문인협회, 징검다리중앙회, 울산남구종합복지관 등 지역 단체 소속 불자 17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심어진 나무는 벚나무 3년생으로 생명력이 강하여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나무다. 나무심기가 이뤄진 청량지역은 3년 전인 2019년 산불로 황폐해진 이후 울주군과 산림청, 산림조합 등이 합동으로 1000여 평을 조성, 탄소흡수림 숲가꾸기를 진행 중인 곳이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사찰에서 매년 해오던 물고기 방생을 지양하고 산불로 황폐해진 곳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나무 방생이라 이름하여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쌍봉사 자비의 백미나눔

태고종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각각 1,000kg을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3월 30일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올린 공양미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과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마이산탑사 나누우리봉사단장 수암 이재현 거사는 인사말에 "지역 소외된 이웃과 독거 어르신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나눠 이웃과 상생하자"고 말했다.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은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부처님께 공양한 백미를 이웃에게 나누는 등 자비나눔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월주 대종사 선양 '태공문도회' 명명

월주 대종사 생신다례재 봉행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태공당 월주 대종사 88세 생신다례재를 봉행했다. 3월 27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다례재에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부주지 원혜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등 문도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월주 대종사 생전 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이날 다례재에서는 도영 스님의 헌향, 원행 스님의 헌화 등이 진행됐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이 헌화하고 있다.

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평소 월주 대종사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설법전에서 열린 금산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북불교백년대계 정책기획단 활동보고, 수현사 사부대중 공동체 추진사항, 지구촌공생회와 나눔의 집에 대한 보고, 월주 대종사 문집출판, 부도 건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2022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도회의 정식명칭은 '태공문도회'로 정하고 문도화합을 위한 공의체계와 소임자 선출제도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 체험하는 '석전기념관' 들어서다

선운사 불교체험관 3월 31일 준공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선운사 불교체험관을 준공했다. 3월 31일 불교체험관 현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혜산 스님, 대우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재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조봉업 전북도행정부지사, 최인규 고창군의장, 이주철 고창부군수 등 지역 기관장 및 불자들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기념사에서 "불교문화체험관은 석전 정호대종사의 정신과 유업을 계승하여 전통문화인 종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지로 세워진 것으로 석전기념관이다"며 "석전기념관을 통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소통, 석전대종사의 정신을 본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불교체험관 개관이 우수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3월 31일 선운사서 열린 준공식에서 사부대중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녕 도성암 불교대학·예향다회 졸업식

3월 27일 100여 불자 모여 서원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예향다회가 졸업식을 개최했다. 창녕 도성암(주지 만천)은 3월 27일 경내 약사전에서 불교대학 제14기 졸업식 및 예향다회 제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도성암 주지 만천 스님(불교대학학장)을 비롯해 이칠봉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안종욱 창녕군의회의원, 김상규 불교대학 교수, 여래자 예향다회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은 개식, 타종(5타), 헌다,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학사보고, 불교대학 졸업장 및 상장 수여, 예향다회 졸업장 및 수료증 수여, 입학생 선서, 학장스님 인사말, 축사, 졸업생 인사, 발원문낭독, 사홍서원, 산회가, 공지사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졸업식 및 입학식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3월 27일 경내 만물보전에서 불교대학 38기, 대학원 2기 졸업식 및 불교대학 40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 및 입학식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과 소임 국장 스님 및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 "날마다 좋은날이지만 오늘은 더욱 좋은 날"이라며 "모든 인연은 시절인연이니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 각자 마음자리를 잘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대학 38기 졸업생은 주간 15명, 야간 16명으로 표창상, 공로상, 개근상 등이 수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